

단발적 욕설은 모욕죄 아니다



김 지 혁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언어적 모욕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환경이 확산되면서 모욕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욕설을 했다고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행위를 두고, “단순히 불쾌하거나 화가 난 수준의 표현일 뿐이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를 다시금 엄격하게 정리한 판결로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적으로 한다. 여기서 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느끼는 표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모욕의 성립 여부를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엄격히 따진다.



따능시에 의해 생성된 모욕죄 관련 이미지.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현의 전제 내용과 맥락, 발언이 나온 경위, 당사자 관계, 말하는 방식, 당시 상황,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표출한 말, 일시적 충동에 나온 욕설, 관용적·단발적 표현은 때로 민사상 책임이나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형사상 모욕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원은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형사처벌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고, 그 표현이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살피는 데 신중을 기한다.

이 사건은 춘천의 한 병원 앞에서 병원 측의 법령 위반과 조세포탈 의혹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던 피해자와 병원 총괄이사인 피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

가 “야 야 야 야 야”라며 반말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대응했고, 당시 주변에는 행인들이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공연히 모욕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이 었갈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발언이 한 번의 순간적 충동 속에서 나온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정당한 대립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욕설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욕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차별적 혐오 표현이 아니고, 순간적 화를 내며 나온 단발적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말’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과정에서 말이 주는 감정과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 그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심하게 허물어뜨리거나 혐오스러운 경멸의 표현으로 실제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할 정도일 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욕설과 같은 거친 표현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국가형벌권이 아닌 사회적 통제와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바른

전광시(市)·충대시·경부시



기지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통합특별시 샌프란시스코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보령시. 경남부산울산통합특별시 창원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구미시. 물론 이 중 LA(군 또는 시)는 대전·부산·대구와 달리 주에 속해 있다. 주 정부청사 소재지도 아니다. 아췌든가 정해서 빚대 봤는데 모두 어색하다. 다음은 실제 행정구역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시 밑에 또 시. 역시 부자연스럽다. 국제우편물에도 시티(city)가 2회 들어가야 한다. 해외에 같은 사례가 있나 싶다. 대런던 내 시티오브 런던(인구 1만 자치구 수준)과 뉴욕주 내 뉴욕시, 도쿄도(都) 내 23개 구 등은 경우가 다

르다.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두어 달 전 돌연 탄생했다. 특정 대도시를 한 도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도 당국의 권한이라지만 명칭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까. 서둘러야만 하는 사연이라도 있었을까. ‘시’를 꼭 붙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광주전남특별자치 ‘도’ 내 광주 ‘시’ 등으로 하면 전라남도 광주시로의 회귀로 비칠 수 있어서였을까. 광주는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도에서 분리됐다. 이후 광역시라는 명칭 변경을 거친 뒤 전남과 다시 합쳐진 것. 일부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광주시는 없나요?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아우를 지역명이 없네요. 지명도 없는데 미래세대한테 5·18 광주를 어찌 설명할지” 등 꾸념 섞인 소감도 올라와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위행정구

역 관련한 후속 작업을 벌이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마창진 합병에 따른 손질과 비슷할 수 있다. 광양과 나주·목포·순천·여수시가 창원시 아래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와 같은 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민 반발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원시’ 통합부터 서두른 것일까. 하나 흠미로운 대목이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종전의 전남 거주민 평균연령은 올해 6월 말 기준 49.9세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또 전국 최초로 ‘평균 쉰 살이 사는 도’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7월 1일부 병합 덕에 이를 면했다. 광주는 6월 전국평균(46.1세) 아래인 44.7세였다. 이후 8월 전남광주통합 평균나는 47.7세다. 이에 전국 최고령 지역은 경북(49.7세)으로 바뀌었다. 속도 낸 게 이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비타락이라고 본다.

/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7일 (음 7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입니다. 60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72년생 부귀공명을 누리게 됩니다. 84년생 불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덕이 없습니다.



소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뤄지니 기쁜 하루입니다.



로랑어

50년생 피하기 어려운 일이니 의연하게 받아들이세요. 62년생 미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산중에 홀로 있는 격이니 외롭습니다. 86년생 결과가 좋으니 자신 있게 추진하세요.



도끼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기일만이 필요합니다. 63년생 장기적인 관망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점진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옵니다.



조

52년생 도와주어야 할 곳은 많고 실속은 없습니다. 64년생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속상한 하루입니다. 76년생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일이 잘 안되 어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뱀

53년생 음식과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65년생 신뢰를 지켜야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이득을 봅니다. 89년생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말

54년생 동업자를 만나 일이 순조롭습니다. 66년생 부동산이나 금전문제 주의하세요. 78년생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90년생 순간적인 기지로 어려움을 쉽게 벗어납니다.



양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 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모든 것이 순탄한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0년생 이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년생 지금은 뉘 분의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닭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환하고 마음도 환합니다.



개

58년생 도움을 받아 좋은 거래가 성사됩니다. 70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마음에 두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94년생 때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빠른 결정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71년생 많은 변화 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83년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95년생 일보다는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승자와 패자

인생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무엇일까? 사회적 성공과 명예, 재벌과 같은 큰 부자가 승자일까? 인류의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이들이 인생의 승자일까? 그렇다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패자인 것일까? 얼마 전 TV에서 남극 탐험의 승자로 기록된 아문센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운명 예측이나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의 가장 북쪽 극점을 북극, 가장 남쪽 극점을 우리는 남극이라 부른다. 미지의 남극점 원정을 최초로 도달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다. 이 남극점 원정은 아문센과 다른 4명의 대원이 1911년 12월 14일에 성공하였다. 역시 남극을 정복하려 떠났던 로버트 펄킨 스콧이 이끄는 영국 원정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아문센 일행이 자신들보다 약 한 달전에 먼저 남극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문센이 남긴 빈 천막과 노르웨이 국기, 그리고 천막 안에 있던 메모지를 본 순간 스콧과 그 일행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작 바극은 아문센 원정대는 무사히 기지로 돌아갔지만, 스콧과 나머지 4명의 대원은 귀환중에 모진 추위와 식량부족으로 모두 사망했다. 후대 사람들은 아문센과 스콧의 성공과 실패를 견주어 보면서 그 요인을 분석한다. 아문센의 성공은 준비성에서 훨씬 영리하고 효율적이었는데, 경로를 따라 식량과 연료를 미리 비축했고 귀환길에 표식을 남겨 귀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이동수단으로서 개 썰매를 핵심 수단으로 선택했고, 극한 환경에 맞춘 장비와 복장 운용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의 활영 원본 필름을 최초로 남겨 매우 중요한 영상기록으로서 세계기록유산이 된다. 또췌록 아문센은 남극 탐험에서는 명백한 승자다. 그러나 5주 정도 시간상으로 늦었다 해서 스콧이 패자인 것일까?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8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9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